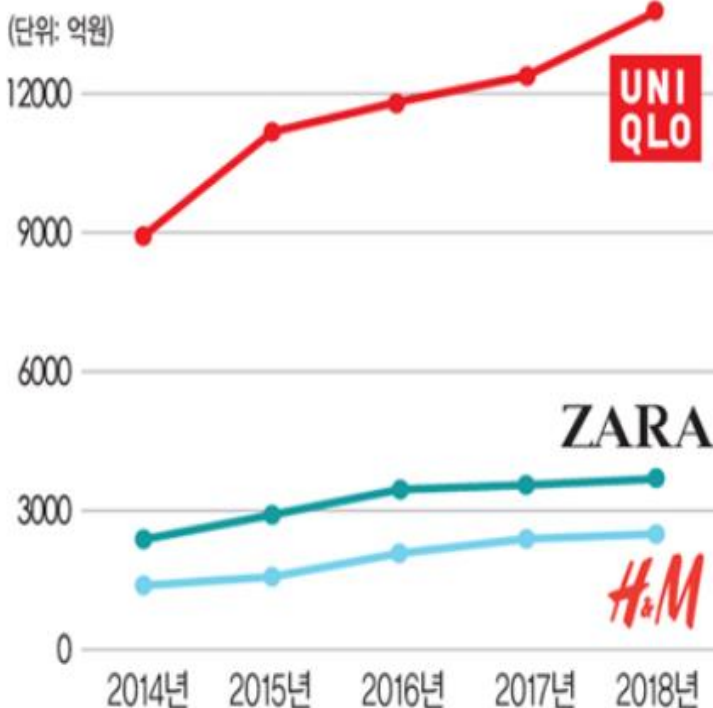


2019.05.17~2019.05.23 발송일: 2019.05.23

꾸준히 성장 중인 글로벌 SPA 브랜드

- 국내 패션 업체들의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SPA 업계와 럭셔리 업계는 매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
- 유니클로는 전년 대비하여 10.9% 신장한 1조 3,73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, 자라와 H&M도 각각 3.5%, 4.2% 신장한 3,677억원, 2,48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음
- 글로벌 SPA 브랜드 3사의 국내 매출 합계가 지난해 기준 약 1조 9,000억원으로 올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- 국내에서 단일 패션 브랜드가 4년 연속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건 유니클로가 처음이며, 지난해 하반기 자매 브랜드 지유(GU)까지 론칭하며, 올해 더욱 큰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임
- 반면 국내 토종 패션 브랜드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며, 지난해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42조 4,300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역신장하였음
-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과 트렌드 변화가 글로벌 SPA 브랜드 실적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분석하고 있음
- SPA브랜드는 기획부터 유통, 판매까지 전 과정을 제조사가 직접 전개하면서 가격거품은 줄이고,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
■글로벌 SPA 국내 매출 추이



ZARA

H&M

UNIQLO

(좌) 글로벌 SPA 국내 매출 추이, (우) 글로벌 SPA 브랜드 3사 (출처: 어패럴뉴스, 뉴스핌)

기능성 소재 경쟁 치열한 유아동복 시장

- 유아동복은 성인과 달리 여름에도 내의 수요가 높는데, 올해 여름 더운 날씨에 적합한 다양한 소재의 유아동 내의가 대거 출시될 전망이다
- 해피랜드코퍼레이션은 유아복 브랜드 '압소바'와 '해피랜드'의 여름 내의에 뱀부, 피마 코튼, 쿨스판, 모달, 인견 등의 새로운 소재를 적용하였음
- 중동텍스타일의 주니어 내의 브랜드 'TFTO'는 해외 생산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춘 레이온 소재의 잠옷을 선보였으며, 가족단위 판매가 가능한 기획 아이템으로 개발하였음
- 유아동 내의 전문 브랜드 '모이모이깜피'와 '유니프랜드'는 지난 4월 에어로쿨, 텐셀, 슬립, 뱀부 소재 제품을 출시하였는데, 자체 생산을 통해 1만원 미만의 합리적인 가격에 100% 오가닉 원단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
- '알로앤루'는 스판사를 혼방한 변형 주름지 소재 4개 아이템과 레이온 소재를 혼방한 18개 아이템 등 신규 소재 22개 제품을 출시하였음
-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은 내의뿐만 아니라, 애슬레저 룩과 수영복, 래쉬가드와 같은 스포츠 의류에서도 출시되고 있음
- 한세드림의 유아동복 브랜드 '컬리수'는 잦은 마찰에도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폴리 소재의 옷감을 적용한 애슬레저 룩을 출시하였음
-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동복 브랜드 '이야이야오'는 UV차단 원단을 사용하여 피부 보호 기능이 있는 '2019 핫썸머 래쉬가드'를 선보였음



(좌) 해피랜드의 여름 내의 제품, (우) 이야이야오의 '핫썸머 래쉬가드' (출처: 어패럴뉴스, 한국섬유신문)

여성복 업계의 여름 대응 전략

- 세계기상기구(WMO)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더욱 덥고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여성복 업체들이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
- 긴 여름 시즌을 겨냥하여 여름물량을 5~40%까지 늘리고, 판매기간 또한 늘렸으며,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을 고려하여 실용적인 아이템을 강화하여 꾸준한 구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음
- 지엔코의 '코벳블랑'은 작년 린넨과 함께 여름 핵심 아우터로 자리매김한 로브 제품의 변형 스타일을 기획하고 프린트를 예년에 비해 심플하게 적용하였음
- 지엔코의 관계자는 "로브가 계절성 아이템이며, 기본 스타일로는 확장성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, 3~4 스타일로 압축하여 롱 셔츠, 롱 원피스로도 활용 가능한 스타일로 변화를 줬다"고 밝혔음
- 아이올리에서 전개 중인 '플라스틱아일랜드'도 티셔츠, 원피스를 여러 가지 코디 연출이 용이한 형태로 선보였으며, 로브는 기하학 프린트를 심플하게 기획하였음
- 이앤씨월드의 '이앤씨'도 보다 미니얼한 스타일을 적용한 아이템 전개에 치중하였음. 이번 로브 제품은 해안가 느낌을 주면서도 무난한 이미지로 선보였음
- '케네스레이디'는 여름 상품 물량을 8% 늘리고, 변형 플라워패턴, 자카드 쉬폰, 시스루 록킹의 노방 소재를 사용한 상품을 출시하였음
- '비키'는 여름 상품 물량을 15% 늘렸으며, 효율성 제고와 신중한 반응 생산을 강화한 만큼 새로운 감성이 가미된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선보였음



(좌) 코벳블랑의 로브 제품, (우) 플라스틱아일랜드의 원피스 제품 (출처: 어패럴뉴스)